삼보 로고가 들어간 발사체로 소유즈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



3명의 우주인을 태운 소유즈 MC-17 우주선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45분에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. 이번에 사용된 소유즈-2.1a 발사체에 '삼보' 문구와 러시아삼보연맹 로고가 표시되었다.

https://youtu.be/ImasY6StSqM (삼보 발사체 발사 장면)

"이번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한 컨셉입니다. 러시아는 많은 분야에서 최초였습니다. 그럼 스포츠 종목 중 최초로 우주에 가는 것도 삼보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러시아삼보연맹 후원회 공동위원장인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연방우주청장이 이 제안을 지지하여 추진되었습니다. 삼보 우주발사체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."라고 세르게이 옐리세예프 러시아삼보연맹 회장이 밝혔다.